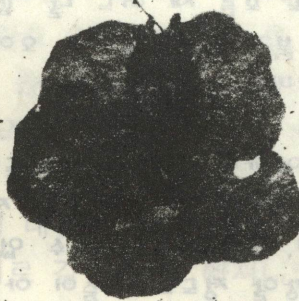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새 움 터

제 25호 2002년 5월

전화 : 031)867-4655/팩스 : 031)867-3031/이메일 : SWOOM@chollian.net/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362-27 (우) 483-060
전화 : 031)663-4655/팩스 : 031)663-4611/이메일 : SWOOM@chollian.net/주소 : 경기도 평택시 신장2동 274-117 (우) 459-122



직업계열센터에서 만든 업서입니다.

진달래꽃을 어니 어니 따서 달리고 붙여서는 언니들에게

봄이 제일 먼저 옵니다.

여글 2 / 특집기사 1 3~5 / 특집기사 2 6~10 / 아이들 11~12 / 새움터소식 13~15 /
작품회기 16~17 / 기말회기 18~20 / 도움조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1~22 / 함께할분들만나고싶습니다 23

여는글

변덕스런 날씨 때문에 따가운 햇빛에 벗어 제꼈던 옷을 다시 여미게 되네요.
새옴터에 항상 애정 듬뿍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게 지내시나요? 그간 새옴터 식구들은, 삼한사온의 변덕스런 날씨속에서도 충실히 생각하고, 또 열심히 서로 부대끼면서 사느라고, 가는 시간을 헤아리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봄이 언제 왔다가 천지에 진달래에 숨을 넣었는지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언니들 손에 그득 담긴 진달래에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봄게 핀 진달래는 오히려 화려한 생기에 불타올라서, 돌아가신 언니들 생각이 더욱 치밀어 오르게 합니다..

올해 1월 29일 근산에서 돌아가신 14분의 언니들의 죽음은 새옴터 식구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시꺼먼 잿더미 그리고 그 안에 남겨진 언니들의 처절한 삶의 흔적들은, 똑같은 비극의 기억을 되새겨,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절망감을 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허망할 정도로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재작년 대명동에서의 일이 꿈이 아닐 텐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인지... 언니들을 비롯한 새옴터 식구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 한마음 한뜻을 모았습니다.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사건의 유가족 분들과 함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언니들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성매매 방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도움을 요청하는 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새옴터의 봄은...

정신 없이 찾아왔지만, 어쩌면 이것이 올 봄, 언니들이 새옴터 식구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는 아닐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언니들의 죽음이 다른 언니들의 삶과 부활로 이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하며 가쁜 숨을 내쉬어 봅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오는 소리가 들리죠?

새옴터의 봄이 비록 뿌연 모래바람 속, 변덕스런 날씨 속의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비 개인 후 상쾌한 공기, 그 청결한 숨처럼 새로운 희망이 올 것을 확신해 봅니다.